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3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0월 6일 (제127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켈 럼

역전되리라

한나와 브닌나의 삶,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 입다와 이복형제의 삶, 모르드개와 하만의 삶, 다윗과 사울의 삶,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를 죽인 자들의 삶... 공통점이 있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 역전 드라마를 쓰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한나의 고백에 답이 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삼상2:6~7). 그렇다. 역전 드라마를 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역전 드라마의 작가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다. 한나가 기도했고, 요셉이 기도했고, 입다와 모르드개,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이 한판 뒤집기를 하신 것이다. 그냥 대강 기도했을까? 그럴 리 없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였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9회 말 만루 역전 홈런을 날려주신 것이다.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가 이제 끝났다. 나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믿는다. 그래서 10월 9일, 날씨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것을 믿는다. 북한이 지금은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가하나 결국 그들은 무너질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열방 위에 우뚝 서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우리의 숨을 조여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이것이 내가 12차까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는 이유이고, 통일이 될 때까지 이 성회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좋고 유리하게 역전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자!

D-3!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를 선포한 후,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부터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시청광장에 다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이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기

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였다. 그렇게 벌써 12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한다. 지극히 작은 교단이지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땅에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이 사명을 다하려 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 비록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남북의 평화통일이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같은 평화통일의 역사를 우리 교단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록 지금 우리가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일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통일은 미뤄놓자고 한다지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제12차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목사님이 늘 강조



10월 9일수요일오후3시,서울시청광장에서만남시대!

도하는 마음이다.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D-day인 10월 9일의 날씨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주실 것을 또한 믿고 기도한다.
돌이켜보면 2014년 첫 시청 집회 때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등 야외집회는 늘 날씨와의 전쟁이었다. 집회 하루 전 단상을 꾸미며 준비하는 과정에, 쏟아지는 비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해 준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집회 당일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쾌청한 날씨로 축복해주셨다. 비를 맞으면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자세로 임했다. 목사님께 배운 대

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
인류 역사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꿈을 갖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결국 눈앞에 목도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인내, 400년 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기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재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일이나 미국의 흑인 노예해방, 흑인 지위 향상을 위해 목숨을 던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강과 바다를 이루듯, 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
“악한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본다.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둘 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볼 건지 그 마음을 읽는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다. 매사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곧 점검이다.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오는 10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우리 다시 대한민국 역사에 통일의 맥을 잇는 예수중심교단이 되자.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제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10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만나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7:3~14)



보험과 적금을 드는 이유를 알라

여러분, 보험 하나쯤은 들어놓으셨지요? 무슨 보험을 드셨습니까?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아니면 생명보험을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보험을 드셨나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나 다쳤을 때, 집에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겠지요.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니까 보험을 든 거고요. 자신이 죽었을 때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까 봐 생명보험도 넣었을 겁니다. 사실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심적으로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보험사가 책임을 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달 보험료 내는 게 쉽지 않지만, 꼬박꼬박 납입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보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종합보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대비, 질병 대비, 사후 대비까지 되는 종합보험 말입니다. 기도를 보험료 내듯 꾸준히 하면, 사고나 질병 대비는 물론이고, 사후도 다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편 91편의 말씀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는 병과 악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험사에 약정이 있듯,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기로 준비된 자다

또한 기도는 적금과 같습니다. 적금을 든 사람은 만기가 되면 목돈을 쥌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늘리기도 하고, 세계여행을 가기도 하고, 원하던 것을 삽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적금에 만기가 오듯 기도의 향아리가 차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나옵니다(행10:4). 적금이 만기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어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로 구원을 받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큰 목돈을 위해서는 장기적금을 들고, 짧은 시간 만에 얻는 단기적금도 있습니다. 큰 기도는 오래 걸리고, 소소한 기도는 금방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걸릴 뿐 큰 기도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야곱이 20년, 요셉이 13년, 그리고 저 이초석 목사가 15년 동안 적금을 부어 목돈을 쥐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중에 적금을 해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도를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 그러겠지만 적금은 여윌수록 많아져가 아니라 다른 걸 절약하면서 조금

무리다 싶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쓸 돈 다 쓰고 나서 돈이 없어 적금을 못 한다고, 보험을 못 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급 타면 무조건 적금 넣을 돈과 보험료부터 떼어 놓아야 하듯, 다른 걸 제쳐놓고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리고 이초석 목사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40일 작정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저

축이 습관이 되듯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9일 제12차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번거롭게 자주 하나고요. 이거 보험 넣는 겁니다. 적금 넣는 겁니다. 지금까지 11회 차 납입했고, 이제 12회 차 납입하려는 겁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려고요. 항상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더니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보험금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험사가 해결에 나서듯,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누적되고 있기에 만기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적금을 안 들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보험 안 넣어도 범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이 생기고, 목돈이 필요할 때 어찌합니까? 빌리러 다닙니까? 궁색하게 남에게 손 내밅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위험에 처하면 어찌합니까? 강대국에 도와달라고 사정합니까? 그러지 말고 미리 적금을, 보험을 들어놓자고요. 미리미리 기도하자고요.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미리 기도해두면 어려울 때 찾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큰 병에 걸리면 보험도 못 듭니다. 병력이 있으면 잘 안 받아줘요. 하나님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사랑

이 많은 서서 급할 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미리 기도해두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침략이 있기 전에 미리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둘 다 패자일 뿐입니다. 너무 피폐가 크고, 무고한 백성들이 너무 많이 희생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둘 다 패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미리 막아야 합니다. 물론 군사력을 강화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2~3). 5년 만기 적금을 들 때 처음에는 ‘5년이 언제 지나가나.’ 하지만, 금방 지나가 목돈을 챙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평화통일이 아득하게만 느껴지지만, 만기가 될 날이 꼭 옵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금 만기일에 분명히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돈 찾아가라고요. 기도도 반드시 아구까지 차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부도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기적금을 들어놓고 왜 빨리 목돈을 안 주냐며 해약하는 자와 같습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목돈을 손에 쥐는 기쁨을 누리듯, 평화통일이 되는 기쁨을 누릴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10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으로 다 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없는 백성은 어딴습니까? 친구나 친지를 강권하세요. 가서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세요. 보험 세일즈맨들을 보면 아주 끈질기게 찾아와 보험을 들라고 설명합니다. 밀어내도 다음날 또 오고, 매일 전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졌다’ 하고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입했든, 강요로 가입했든 보험이 우리를 이롭게 하듯, 억지로와 서라도 기도하면 좋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을 받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시94:9). 만기가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적금을 넣고, 보험을 넣듯, 통일의 그 날을 생각하며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화통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10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자연(自然)’이란 단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국어 사전에 자연이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맞는데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천지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후보자를 공박하려고 신앙을 문제 삼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에 그 질문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천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신학석사로서 교회의 전도사 사역까지 했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며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신화나 전설처럼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자

들이 있지만 진화론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가설입니다. 그 모순점들에 대한 설명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는데도 그 이론을 대체할만한 이론이 없으니 아직도 세상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지로 만든 가설에는 잡다한 설명이나 궤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에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첫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는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밝혀지는 것들이 많지만 세상의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성경말씀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세상의 과학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엄청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여 복제동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남녀의 결합이 없이도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며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성경에세이 ::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만나요!

여보게! 몇 해 전인가 기도원에서 건강을 챙기면서 지내던 중, ‘인천상륙작전’과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네. 나는 그 영화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네. 그것은 나라 없는 자의 설움이었고, 약소 민족의 아픔이기 때문이었네. 때마침 기도원으로 나를 찾아온 아흔의 한 권사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다 죽는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연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네. 나는 세계 구석구석 안 다녀본 나라가 거의 없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국가가 없는 백성이라네.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백성 말일세.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동족상잔의 비극도 있었지 않은가. 현재도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라 서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네. 그래서 자고로 국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네. 그래야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고, 알보지 못하거든. 안보 없는 경제성장? 무의미하네. 포탄이 날아드는 순간 국가가 흔들리는데, 경제인들 지탱이 되겠는가.

여보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네.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여는 것은 우리 교단을 뿔내려는 게 아니네.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 교단이 이 일에 앞장서는가 하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그날 모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네. 이건 의무야. 방백도, 열강도 우릴 도울 수 없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네. 그러니 그분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애굽의 종살이가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가 모여 평화통일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안기실 것일세. 10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우리 꼭 만나세!

봉우

:: 찬양과 경배 ::

즐겁게 순종하고 계시나요?

신입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듣는 이야기가 있다. “생도가 신학원에서 배울 것은 결국 순종이다.”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께 순종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발길이 닿아 경험한 것이 다 훈련이라고 하겠다. 내 자아가 형체 없는 가루가 되어야만 주인이 쓰기 좋은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다. 나도 세 번째 성적표를 받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다. 성적표의 점수는 ‘실력을 넘어서 순종의 척도’임을. 우리 신학원의 학기는 전쟁처럼 치열하다. 과제로 늘 시간에 쫓기고,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데, 무엇보다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이 훈련(과제)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이다. 그러나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 군사는 선택권이 없기에 그냥

해야 한다. 학생의 노력은 성적표로 알고, 신앙의 척도는 순종에서 드러난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는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이 최선인 줄 알았다.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계22:12). 그러나 최근 강의에서 배운 ‘즐거운 순종’은 내게 새 도전을 주었다. 목회자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순종을 즐거운 일로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이다.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날 구원해주신 그 감사와 감격을 되찾을 때, 우리는 순종을 즐겁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운 순종을 하기 원하는 내게도 복음의 감격이 새롭게 채워지길 소망한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감사 미소

우리 교회에 ‘감사 미소’란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감: 감사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미: 미안합니다. 소: 소중합니다.’라는 뜻이다. 감: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 은혜로 번역되는 ‘카리스’는 ‘감사’란 뜻도 있다. 즉 은혜와 감사는 하나이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니 서로 감사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은혜를 모르니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사: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골4:6) 하겠다. 미움이나 원망의 말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소금이 녹아 짠맛을 내고 자신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을 녹여 사랑으로 하는 말은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하자.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sorry(미안합니다)와 thank you(고맙습니다)이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니 분쟁이 있을 수 없다. 소: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도 소중하다. 내가 상대를 소중히 여기면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는 말씀을 황금률이라 한다. 세상에 그 누구도 멸시받기를 원하지 않고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12:37) 하겠다. 지혜롭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잠25:11). 거친 말이나 이기적인 말은 같은 말로 되갚음 당하지만, 온유하고 사랑의 말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2024년 우리 교단 슬로건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이다. 이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합니다.’ 하자. 책임 전가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하자. 그리고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면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 신앙에세이 ::

문제 해결의 열쇠

최근 제가 속한 단체에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는데, 오해가 해소되지 않고 쌓이다 보니 자그마한 언행도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 몇몇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가 오해한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누구나 오해할 권리가 있다. 반대로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진정하고 상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총회장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오해로 생긴 분노를 가라앉히고, 서로 터놓고 대화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길어지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지

기 전에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만나 솔직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더 커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대화하면 할수록 상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구조가 다르고, 대화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악의가 없다는 믿음이 생겼고 오해가 풀리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화하지 않고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기도원 집회 때 기도로 오해를 풀 경험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피부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하

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중 예수님이 나의 병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동안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배 때 이시대 목사님이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건강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목사님께 배운 지혜의 가르침을 쫓아 진실한 대화를 통해 묵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소희
so2eej@naver.com

표정 관리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든,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든 표정 관리를 하며 살아왔다.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일부러 불편한 마음을 상대에게 알리려 표정으로 티를 낸 적도 있었고, 그게 통해서 상대가 내 요구를 들어줬다 생각했지만, 그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들며 알게 되었다. 결혼생활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표정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내게 물었다. “여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당황했지만 “아니, 그런 거 없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사실 불만은 있었으나 괜히 굶어 부스럼 일으키지 말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자 생각하며 나름 표정 관리를 하던 차였다. ‘이상하다~ 분명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생각했다. 그런데 내내는 내 표정에 다 드러난다며 뭐 때문인지 되물어 그간 속 얘기를 하여 오해를 모두 풀 적이 있었다. 나중에 거울 앞에 서서 못마땅한 마음을 감춘 아무렇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거울 속 내 얼굴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 이런! 표정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구나!’ 그제야 아이들이 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도 ‘왜 화가 나왔나’고 묻던 말이 이해가 되었다. 선행되지 않은 차처럼 나는 속을 모두에게 보이며 살았던 것이다. 어쩌면 내 영혼의 표정도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모두에게 드러나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불안한, ‘충만하다’ 말하지만 허약해진, ‘감사하다’ 말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영혼의 표정이. 과연 지금 내 영혼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6:10).

박찬영 집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장 3절)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애국(愛國)이다
이보다 보람되고 큰일은 없다 -봉우-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선한 영향력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미국 선교사님이 설립한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플(예배)이 필수과목이었고, 학과마다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주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정오가 되면 학교 중앙에 크리스천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학생 중 크리스천의 비율은 어느 대학과 다르지 않았고, 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의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조직을 갖춘 운동권 계열의 비기독교인이 주로 당선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총학생회는 교직원 노조와 함께 대학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다수 학생들의 뜻과 상관없이 강의실의 책걸상으로 학교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높이 쌓아놓고 총파업을 주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고사를 지내려고 시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크리스천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모여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일부 크리스천들이 학생회를 직접 운영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학년이었던 저에게도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와서 선거팀에 합류했습니다. 총학생회장과 2개의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에서 많이 보던 음해와 비방이 난무해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기에 그들처럼 상대를 비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방법만을 고수한 끝에 제가 소속된 단과대에서 우리 선거팀이 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되어 학생회 임원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크리스천들로만 구성된 학생회가 세워졌고, 학생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모임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만큼 학생회 활동으로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취하지 말자고 결의하고, 학생회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까지 자발적으로 모두 학우들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학생회에 부여된 재정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애쓰고, 때마다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학우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학생회에서 섬겨주고, 온통 술판으로 얼룩져있던 기존 학교 축제 문화와 다르게 학생들이 술 없이도 즐기고 싶을 수 있는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의 조직은 작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 다른 크리스천 학우들에게도 우리의 헌신이 본이 되어 각자 속한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교의 학생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도 이러한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라의 각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장으로 세워진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빌2:13).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 시대에 우리 교단에서 각 분야의 수장과 통치권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각 분야의 수장으로 세워지기까지 훈련받고 있을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실 때, 총회장 목사님의 이 진실된 고백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늘 우리 교단의 성도들 중에서 통치권자를 비롯한 각 분야의 수장이 배출되기를 기도한다. 왜? 우리 교단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들 덕을 보려고? No. 그런 사심(私心)은 내게 없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고, 더불어 그들을 보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랄 뿐, 다만 우리 교단은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다.”

정명관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투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